

어획량 급감 병어 어민들 울상



전남 서남해안의 수온이 상승하는 등 어장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병어 어획량이 급감,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목포수협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병어 어획량은 253t, 어획고는 24억7천만원으로 ▲2006년 514t, 44억5천만원 ▲2005년 506t, 34억3천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어는 매년 5~6월께 산란을 위해 산란 입자와 도초, 비금, 철발도 알았다 등에 물려들고 있으며, 매년 200여 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나서왔으나 올해처럼 어획고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남해 수온 상승 등 어장 환경 변화 어획고 작년 절반...가격은 크게 올라

8.5t급 신안 비금 기승호(선장 유영철·65)의 경우 지난달 22일 500m에 이르는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그물에 걸린 병어는 겨우 4마리뿐이었다. 9.7t급 대송호 김진수(51·목포시 산정동) 선장은 "일자 해상에서 산란 6명고 지난달 27일 하루 4차례 조업을 했지만 40마리도 잡지 못했다"며 "5~6월 성수기 가운데 6월 한 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병어잡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측은 이처럼 병어 어획량이 급감한 것과 관련 "병어는 회유성(바닷속을 돌아다니는 성질)이 강해 수온이 변하거나, 먹이가 줄어드는 등 산란 환경이 변화되면, 예전의 산란지를 떠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월 평균 목포·신안 해상 수온은 지난해보다 1.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병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시중 판매가격도 지난달 20마리 한 상자에 11~12만 원하던 것이 최근에는 6~7만 원이 오른 17~18만 원대로 급등, 소비자들의 발걸도 뜸해졌다.

병어를 사러 시장을 찾은 김석두(51·목포시 연동)씨는 "지난해는 산골짜기에서 잡은 병어를 먹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값이 너무 비싸 제철을 맞은 병어를 고소한 맛을 보기 힘들 것 같다"며 발길을 돌렸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홍제교육장학재단 학생 15명에 장학금

권이담 전 목포시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홍제교육장학재단(이사장 조기문)이 지난달 31일 재단설립이후 8번째로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홍제교육장학재단은 이날 목포고 3년 이진오군과 덕인고 3년 박상면군 등 15명에게 각각 5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홍제장학재단은 권이담 전 목포시장이 지난 1995년 제 33대 목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7년 재임기간 동안의 봉급 전액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다.

홍제장학재단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105명에게 5천94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무럭 무럭 자라거라" 목포지방법해양수산청(청장 조재현)은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달리도 부근 해상에서 넓적 중모 1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목포해양경찰청과 함께 '바닷가 대청소 캠페인'도 벌였다.

목포지방법해양수산청(청장 조재현)은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달리도 부근 해상에서 넓적 중모 1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목포해양경찰청과 함께 '바닷가 대청소 캠페인'도 벌였다.

간암 고통...아버지를 살려 주세요

목포 초등생 간 기증자 애타게 찾아

목포에 사는 한 어린이가 간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해 줄 희망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초등 3년생인 이정훈(9·목포시 죽곡동)은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서 간암에 걸린 아버지, 동생과 함께 시에서 지내는 생계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정훈이가 4세 때 가출해 연락이 없는 상태다.

아버지 이윤수(51)씨는 지난 2000년 12월께 간암에 걸려 4차

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더 악화돼 빠른 시일 내에 간이식을 받아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씨는 "어린 자녀들이 마음에 걸린다"며 자신에게 간을 기증해 줄 뇌사자나 희망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정훈군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 "아버지 병을 고쳐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의(061-270-8187)

/목포=임영춘기자 lyc@

진도지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진도지역에 대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오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 각종 지역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 업체는 진도군에서 광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식과 사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조사표를 입력하는 인터넷조사 병행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조사대상 업체가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

응하게 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체의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성실한 응답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무안읍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내년 7월 환경관리종합센터 가동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무안읍 소재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다.

무안읍 지역은 격일제(월·수·금)로 수거되며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대문 및 가게 앞(아파트는 중간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해수욕장 잇단 개장·미술품 경매·토요민속여행...

6월엔 멋과 예술이 넘치는 진도로 오세요

한국관광공사 '가볼만한 곳' 선정

한국관광공사가 '6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멋과 품,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배의 섬 진도를 추천했다.

진도에서는 지난 2일 가계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다. 가계 해수욕장에서는 8월 말까지 해변가요제 등 피서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진도군은 SBS 방송 드라마 '패션 70s'의 촬영지인 조도면 관매도 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 4곳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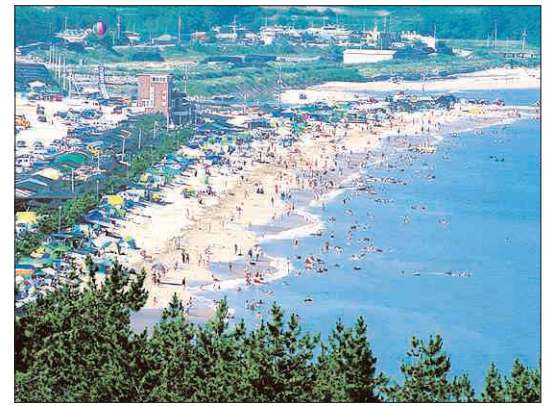
또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진도 윤림산방에서는 유명 작가의 한국화, 동양화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남도예술은행 토요일경매가 진행된다.

진도읍에 위치한 향토문화회관에서는 '흥과 신명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진도북놀이와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배우기 등 진도의 멋과 예술을 느낄 수 있는 토요민속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웰빙 등산로와 낚시터로 유명한 점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개매기체험과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등도 실시된다.

이밖에 진도는 대한민국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지산면 세방낙조를 비롯해 돌아온 백구마을로 유명한 의신면 돈지 마을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문의 (061-540-3045)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매주 토요일 윤림산방에서 열리고 있는 남도예술은행 토요일경매(위)와 지난 2일 개장, 오는 8월 말까지 관광객을 맞이할 고군면 가계 해수욕장

독거노인 등 30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운동 신안지회

새마을운동 신안군지회(회장 김재호)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신안군지회는 지난 4월26일 '2007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군지회는 지도읍 탄동리 독거노인 김고단(74)씨 태장관 및 썩크대·보일러교체와 도배 등 활동을 벌였다. 신안군지회는 올 상반기에 불우이웃 30세대의 집을 수리할 예정이다.

군지회는 지난 2004년부터 105가구에 대해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을 벌였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시의원 6명 예산 심의·의결 앞두고

市 공무원들과 향응성 술자리

경실련 등 시민단체 비판

목포시의회 예결위원들이 심의·예결을 앞두고 시 관계 고위공직자들과 술자리를 가져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 예결위원장과 고 모 간사 등 6명의 시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시청 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술자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안 심의·의결

을 앞두고 향응접대를 받은 것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민 김모(46·목포시 옥암동)씨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다면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의례적인 저녁식사는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극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신 944-0444
	함 평 324-8111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기억시켜주는 기적의 영어학습법 AMS로 단축된 영어의 세계를 만나자!
-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10배 이상 빠른 획기적인방법
- 특목고 조기 준비생, 각종 영어경시대회를 위한 학생의 최적코스

[성공사례 | 퍼펙트 AMS]

◆은상수상장 학생 조소현
(13세, 00초등학교 6학년 인턴)

"AMS! 나의 목적 달성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기계겠지"라는 생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견성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는 학원(영어) Quiz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학원을 중지하고,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학교재엔 영어뿐만 아니라, 일석 삼~사조의 기능이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각종 영어 능력시험 등은 속원말로 거저막기였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공인 말하기 능력시험인 ESPT에서 47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상수상장 학생 신지영
(16세, 00중학교 3학년 경기도)

"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행운 AMS"

AMS는 짧은 시간에 고 효율의 놀라웠습니다. 제가 배운 AMS 과정은 지금도 다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AMS를 배우기 전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영어문장을 읽으면 친구들이 저보고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알고 이해한다고 부러워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부모님들 또한 좋아 할 수 있는 말씀까지 들어있어 저희 부녀는 매일 말씀을 틀어 놓으며 영어공부를 합니다. AMS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친구들이 AMS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어학교재인 만큼 빠르게 홍보는 되었지만... 좋은 영어 공부법은 서로 공유해야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우연히 AMS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AMS의 활용분야: 각 기종, 모든 학생 필수 -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직장인, 주부, 일반등 전과정 단계별·수준별·영역별 8000개의 콘텐츠로 완벽구성

AMS (주)AMS교육 대표 전화 1600-0596

로템갤러리 Gallery RODEM

직수입 엔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가구의 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침대, 의자 등 다양한 가구 전시

찾아오시는 길: 1기동방면, 남동로, 삼성디지털프라자, 현대자동차, 미래이동행, RODEM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